

일본의 부산 북빈매축과 비석마을*

최연주**
yjchoi@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면서 | 4. 비석마을 묘지석과 주요 내용 |
| 2. 왜관과 일본 조계지, 그리고 일본인 묘지 | 5. 나오면서 |
| 3. 부산 북빈매축과 谷町 | |

主題語: 비석마을(Bi-Suk village), 墓誌石(Tombstone), 省墓(a visit to one's ancestral graves), 釜山 北濱埋築(the reclamation in busan north harbor), 두모포왜관(japanese office of Dumopo), 초량왜관(japanese office of Choryang)

1. 들어가면서

비석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산 19번지 일대이다. 비석마을로 불리는 것은 일본인 묘지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는 20세기 초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던 곳이다. 마을 곳곳에 明治, 大正, 昭和 등의 일본 연호가 새겨진 묘지석이 있으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 일부 묘지석은 주택의 하부 퓌들, 계단, 축대, 각종 받침대 등으로 사용되어 내용 및 수량조차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감천문화마을이 인근에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지만, 마을의 형성과 묘지석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둘러본다.

지난 2015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창조재단 협조를 받아 퓌들이나 축대, 계단 등으로 일부 훼손된 묘지석을 포함하여 120여점을 조사하였다. 120여 묘지석 중 拓本이 가능한 것으로 간추린 결과 70여개로 정리되었다. 탁본 후 자료를 정리하던 중 묘지석 대부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성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부산 근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702220001).

이 논문은 2016년 10월 29일 일본 APU대학에서 개최된 한국일본근대학회 '제34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부산 비석문화마을의 일본인 묘지석에 대한 一檢討」라는 논제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학과 교수

의문을 가졌다. 그 후 수차례 답사 및 조사를 통해 마을 형성은 20세기 초 일본에 의한 부산항 北濱埋築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부산이 근대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공간이라는 점도 파악하였다. 본고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비석마을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부산 도시형성사와 지역 정체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도심 재생 사업 등으로 감천문화마을과 비석마을 등이 재조명되었다. 여기에 새로운 자료 발굴과 기존 자료의 재해석을 통해 마을역사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선행 연구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1876년 개항 직후 부산 도시기능 재편에 대한 연구이다.¹⁾ 둘째,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의 정착과정 또는 산업화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다루면서 비석마을의 성장과 낙후를 다룬 연구이다.²⁾ 셋째, 일본의 식민지 경영과 일본인의 장례 문화에 대한 연구이다.³⁾ 넷째, 비석마을의 건축학적 고찰로서 일본인 묘지 위에 건축된 주거 공간 유형과 그 특성을 다룬 연구이다.⁴⁾ 이는 비석마을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마을의 근간이 되는 묘지석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정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자료집 형식으로 발간된 『사진으로 보는 비석마을 이야기』⁵⁾를 통해 묘지석의 형태와 위치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었다. 체계적인 조사와 분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석마을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묘지석은 일본인들의 장례 의식과 절차 등과 관련 깊다는 점, 그리고 마을 형성은 일본에 의한 租界地 확대에 따른 것으로 都市史와 관련 깊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장에서 왜관의 일본인 장례 문화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왜관에서 행한 葬禮와 省墓 등을 통해 그들의 葬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876년 개항 이후 조계지의 기능 재배치와 확대 과정에서 일본인 공동묘지의 이전이 불가피하였다. 여러 묘지들이 이장된 곳이 바로 비석마을이다. 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 1) 柳敎烈(2002)「釜山 日本人專管居留地와 北濱埋築에 關하여」『일어일문학』17; 차철욱(2006)「釜山 北港埋築과 市街地 形成」『한국민족문화』28; 차철욱(2006)「대한제국기 부산 북항 매축관련 자료의 내용과 성격」『항도부산』22; 차철욱(2007)「1910년대 釜山鎭 埋築과 그 性格」『지역과 역사』20
- 2) 공윤경 외(2011)『蛾眉洞 사람들:離鄉과 境界의 땅 釜山の 蛾眉洞』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철욱, 류지석, 손은하(2010)「韓國戰爭 避難民들의 釜山 移住와 生活空間」『민족문화논총』45; 차철욱, 공윤경, 차운정(2010)「蛾眉洞 산동네의 形成과 文化變化」『문화역사지리』22-1
- 3) 柳敎烈(2008)「1920年代 植民地 海港都市 釜山の 日本人社會와 ‘죽음’의 政治」『일어일문학』39; 柳敎烈(2011)「1930年代 植民地 海港都市 釜山の 日本人社會와 ‘죽음’의 政治」『일어일문학』49
- 4) 황영식(2012)「도심 속 오지마을 경관특성 비교연구: 부산 태극마을, 비석마을, 안창마을을 대상으로」경성대 공학석사 논문; 동범준(2015)「釜山 蛾眉洞 碑石마을의 現況과 持續可能한 發展方向 提案」『박물관학보』28; 정희영 외(2015)「蛾眉洞의 形成過程과 住居變化에 關한 研究」『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35; 정희영(2015)「蛾眉洞 碑石文化마을의 住居空間 發生 및 變化過程」부산대 공학석사 논문
- 5) 비석마을 도록 작업 추진 협의회(2014)『사진으로 보는 비석마을 이야기』부산창조재단

한편 비석마을의 본래 명칭은 谷町이다. 곡정의 형성은 부산 北濱埋築과 관련 깊다. 그래서 3장에서는 개항 직후 일본의 조계지 변화와 화장장 및 공동묘지 조성 배경을 살펴 볼 것이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마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4장에서는 묘지석 조사와 탁본 추진과정과 그 내용, 묘지석 형식 등을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비석마을 정체성과 마을 역사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왜관과 일본 조계지, 그리고 일본인 묘지

2.1 두모포왜관과 왜인들의 성묘

비석마을에 산재한 일본인 묘지석을 검토하기 위해서 왜관에 거주한 왜인들의 장례와 성묘 관련 사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숙종 4년에 왜관이 두모포에서 초량으로 이전되었다. 조선 정부는 조선인들과 왜관에 사는 왜인들 사이의 부당한 거래, 풍속을 해치는 부정한 일에 대해서 엄단하였다. 그래서 일본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였다.⁶⁾ 곧 왜인들의 조상 묘소 방문, 통행 허락 등과 관련된 約條을 맺었다. 그 중에서 성묘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春秋 社日과 百種節에 왜인들이 성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동래 부사 蘇斗山의 장계에 의하여 옛 왜관 때에 왜인이 죽어서 매장한 사람이 몹시 많았는데 그 자손으로 새 왜관에 와서 머무르는 자들이 춘추 사일 및 백종절에 가서 성묘하기를 원하는바,情理에 관한 일이어서 허락해주었다.

社日에는 각 7일이고, 百種에는 4일로 날짜를 정하였다. 新館에서 舊館까지는 10리 길로 민가가 연이어져 있어서, 왜인이 왕래할 때에 제 마음대로 아무 데나 들어가므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였다. 정조 9년 을사에 別差 金健瑞가 관수왜를 책망하고 타일러서 쪽 뺨은 큰길 밖으로는 한 걸음도 옆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⁷⁾

숙종 9년에 對馬島에서 通信使가 약조한 내용 일부이다. 왜인들이 성묘를 위해 동래 부사와 협의의 후 다니고 있으므로 조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회성 행사가

6) 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수록된 史書는 『증정교린지』이다. 대마도인에 대한 예우와 그들과의 조약, 倭館 문제, 막부와의 使行 및 交易 관계 등이 담겨져 있다.

7) 『증정교린지』권4, 지, 조약, 許春秋社日及百種節日倭人省墓條.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풍속이라는 점에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여 논의해 보자. 첫째, 왜인들은 정기적으로 성묘를 다니고 있다. 그들은 춘추 사일에는 7일간, 음력 7월 15일인 百種節에는 4일간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았다. 춘추 사일은 왜인들의 풍속으로, 춘분과 추분에 가장 가까운 戊日을 명절로 삼아 봄에는 토지신에게 그 해의 풍작을 기원하고 가을에는 추수를 감사하는 제사를 지낸다.⁸⁾ 왜인은 매년 명절에 해당되는 춘추 사일과 백종절에 정기적으로 성묘한 것이다.

둘째, 성묘를 가고자 하는 지역은 ‘옛 왜관’ 즉 舊館 또는 古館이다. 고관은 어디인가. 別差 金健瑞가 관수왜를 책망하고 타이른 시점은 정조 9년(1785)이다. 가) 약조는 초량왜관으로 옮긴 이후인 숙종 9년에 맺었으므로 고관은 두모포왜관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가)는 초량왜관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명절을 맞아 과거 왜관이었던 두모포로 성묘하는 규정이다. 초량왜관 왜인들의 정기적인 성묘에 대해 영·정조대 문신이었던 이덕무의 『청장관전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동래 왜관에 머물러 있는 왜인의 조상 무덤이 舊館 뒷산에 있는데, 해마다 春秋 社日에는 성묘하기를 청하였다. 갑진년 2월이었다. 왜관의 왜인이 2월 26일에 성묘하기를 청했다. 釜山 僉使가 “금년 봄 사일은 다음 달 초사흘인데 어찌해서 미리 청하는가?”하고 따져 물었다. 왜인은 자기 나라 曆書에 봄 사일이 2월 26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묘하기 청하는 것이라 하므로 비로소 허가했고, 동래 부사는 이 사실을 狀啓하였다.⁹⁾

초량왜관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春 사일에 성묘할 수 있도록 요청한 갑진년 2월은 정조 8년 2월이다. 가)보다 1년 전이므로 왜인들은 매년 성묘를 하고 있다. 정기적인 성묘 시기는 일본의 曆法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고관으로 성묘하는 것이 오랫동안 내려온 풍속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왜인의 매장 풍속 중 왜관 인근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왜관에서 왜인이 사망하면 대마도로 그 시신을 운구하는 것이 원칙이다.¹⁰⁾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배경은 한정

8) 春秋 社日을 입춘과 입추가 지난 뒤 다섯 번째의 날을 사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百種節은 음력 7월 15일로 보고 있다(김용옥(2014)「조선시대 동래부·부산왜관의 법제도」『중보관 부산의 역사와 정신-근대와 현재를 묻다』도서출판 전망, p.53).

9) 『청장관전서』권58, 盜葉記 5

10) 왜관에 거주할 수 있는 왜인은 대마도 출신 왜인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일본 본토의 왜인 또는 일본인은 원칙적으로 왜관으로 올 수 없다고 한다. 1876년 개항 이후 太政宮 포고 제128호가 공포된 이후 일본 내의 여러 곳에서 조선 또는 한국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1989)『부산시사』1, 부산직할시 및 김용옥(2014)「개항기 부산조계에 관한 연구」앞의 책 참조

된 왜관 구역 안에 묘지를 함부로 조성할 수 없고, 왜관 밖에 무분별하게 조성된다면 조선 정부는 추후 관리가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왜인이 사망하면 그 시신을 대마도로 운구하도록 했다. 왜인 시신을 대마도로 운구하기 위해서는 염장 운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염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몰래 매장하는 것을 선호하였을 것이다. 가)에서 ‘매장한 사람이 몹시 많았다’라고 한 것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부정기적인 묘소 참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숙종 3년에 조선 정부와 초량왜관 이전 조성에 대한 협상을 하던 중 사망한 津江이라는 인물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참조된다.

다) 동북 방향으로 1정 정도 가자면 흙으로 만든 다리 즉 土橋가 나온다. 그 하천 건너편에 개운포라고 하는 촌락이 있는데, 이곳을 속칭 세내라고 부른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향하면 황토색을 띤 산이 나오는데, 여기서 津江씨의 무덤이 있다.¹¹⁾

초량왜관에서 개운포를 거쳐 황토색 산에 있는 津江 묘소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황토색을 띤 산’은 어디일까. 사료 가)에서 ‘새 왜관에서 옛 왜관까지는 10리 길로 민가가 연이어져 있어서’라고 하였고, 나)에서 ‘왜인의 조상 무덤이 구관 뒷산에 있는데’라고 하였다. 따라서 ‘황토색을 띤 산’은 두모포왜관 근처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모포왜관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 살펴보자. 두모포왜관 설치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과 관련 깊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외교는 단절되었다. 선조 31년에 이르러 강화교섭이 시작됨에 따라 선조 34년 절영도에 임시왜관을 설치하였다.¹²⁾ 선조 39년에 정식으로 왜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¹³⁾ 곧 두모포에 새로운 왜관을 짓기로 하였다. 왜관은 선조 40년경 완공되어 숙종 4년 초량왜관으로 이전하기까지 대략 72년간 존치했다. 다음 사료를 통해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의 왜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라) 경상도 관찰사 鄭賜湖가 치계하기를, “신이 巡視하여 부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짓는 왜관의 入接하는 房屋은 이미 다 완료되었고, 宴享하는 大廳은 지금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터에 위에 짓지 않아서 혹시 왜의 환심을 잃어 원망이 생길까 두렵다고 의심하지만 신의 소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왜관과 부산은 한 城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평시에는 부산은 서쪽에 있고 왜관은 동쪽 5리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釜山鎭 왜인이 쌓은 성을 왜관의 옛터 옆으로 옮겨 쌓았으니 바로 동쪽입니다. 이번에 짓는 왜관도 서쪽 5리쯤 되는

11) 사료 다)는 1806년 小川次郎右衛門이라는 인물이 지은 『우진토상』에 수록된 내용이다.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2005)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p.42 재인용

12) 『선조실록』 권203, 선조 39년 9월 17일 계미 ; 권204, 선조 39년 10월 20일 을묘

13) 『선조실록』 권206, 선조 39년 12월 21일 을묘

곳에 있어서 부산과의 거리가 평시와 똑같으니 옛 터이나, 새 터이나는 논할 바가 아닌데 저들이 어찌 감히 원망하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는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¹⁴⁾

경상도 관찰사 장계에 따르면 옛 왜관의 위치는 부산성 동쪽 5리에 있고, 새로 짓는 왜관은 부산진성의 서쪽 5리에 있다고 하였다. 전자는 태종 7년에 조성된 부산포왜관을, 후자는 선조 40년에 조성된 두모포왜관을 각각 지칭한다. 두모포왜관의 규모는 동서 126보, 남북 63보이며, 면적은 약 1만평이다. 문은 동쪽에 한 개뿐인데, 이것을 수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건물로는 중앙에 연향청, 그 좌우에 동관과 서관이 세워져 있고, 남쪽에 선창이 있다.¹⁵⁾ 동쪽은 바다와 접하고 남·북·서쪽에는 담이 둘러쳐 있으며 동문 밖에는 佐自川이 흐르고 있다.

좌자천 서쪽에 왜관이 입지해 있다. 좌자천은 수정산과 엄광산 기슭에서 발원한 하천으로 세 갈래가 있다. 지금의 부산시 동구 수정3동 동구체육공원으로 흐르는 한 갈래, 수정5동 수정공원에서 흐르는 한 갈래, 좌천동 아란야사 사찰에서 흐르는 한 갈래가 있다. 세 갈래 하천은 수정초등학교 인근에서 합류된다. 좌천동을 동쪽에 끼고 지금의 동부경찰서와 봉생병원 사이로 흘러 부산항으로 흘러간다.¹⁶⁾ 좌자천을 중심으로 서쪽에 왜관이 있고, 그 반대편에 부산진성이 위치하였다. 라)의 경상도 관찰사 장계 보고 내용과 일치한다. 지금의 부산시 동구 수정동의 수정시장일대는 왜관이 입지한 곳이다. 숙종 4년 초량왜관으로 이전한 이후 두모포왜관이 있던 곳을 古館, 초량왜관을 新館이라 불렀다.

앞서 제시한 가)와 나)에서 성묘를 갈 때 舊館으로, 다)에서는 개운포를 지나 서쪽 산으로 향한다고 하였다. 가)·다)에서 공통점은 묘소의 위치를 두모포왜관으로 암시한다. 두모포왜관을 끼고 흐르는 좌자천이 발원한 산에 묘소가 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지금의 수정동 뒷산에 위치한 水晶山과 嚴光山 동남 자락이 가장 유력한 지역이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옛 사람들은 水晶이 많이 있어 수정산이라 불렀고, 수정산에는 馬鉞城 또는 馬里城이라 부르는 山城이 있었다. 그 주변에 공동묘지가 많았는데, 1927년까지만 해도 이 일대에는 민가가 없고 늑대와 여우 등이 밤에 자주 출몰할 정도로 인적이 뜸하였다¹⁷⁾고 한다. 수정산 정상 부근에는 지금도 石英이 가끔씩 눈에 띄고, 수정산 정상부에서 부산항 방향인 부산동여중과 반대편인 동의대 방면으로 石城이 일부 남아 있다.¹⁸⁾ 口傳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으므로

14) 『선조실록』 권212, 선조 40년 6월 20일 신해

15)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2005) 앞의 책, pp.39-40

16) 최연주 외(2015)『증산마을 이야기』부산발전연구원, pp.15-16

17) 부산광역시 중구청(2013)『1928 그 때 무슨 일이...』부산광역시 중구청, pp.281-282

18) 필자는 수차례 답사를 통해 수정산 정상 부근에서 확인하였는데, 석성은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동여중에서 정상부까지는 그 윤곽을 찾을 수 있으나, 동의대에서 가야별산아파트 방향은 입도 개설 등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묘소 위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수정산 또는 마이성 주변의 공동묘지는 왜인들이 몰래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나하면 조선 정부는 조선인들이 왜인과의 접촉 또는 교류하는 것을 통제했기 때문에¹⁹⁾ 이 일대에는 조선인들이 출입할 수 없다. 왜관 주변의 일정 구역 범위 내에는 조선인 민가는 물론 출입도 금지되었다. 따라서 왜인들이 조성한 공동묘지로 볼 수 있다. 다)에서 개운포를 지나 서쪽 방향의 산에 위치한 津江 무덤 인근과 세내에 묘소가 각각 24기, 3기가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수정산 또는 마이성 주변 공동묘지와 위치상 일치한다. 구관인 두모포왜관 당시 거주하는 왜인들이 이 일대 묘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신관 초량왜관으로 이전한 후에도 성묘를 하였던 것이다. 두모포왜관 뒷산인 수정산 일대에 조성된 왜인들의 공동묘지는 광해군 때부터 숙종 3년까지 70여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일본 조계지와 일본인 묘지

비석마을 형성은 초량왜관의 기능 개편과 확장, 그리고 일본 조계지의 市街化, 都市化 과정과 관련 깊다. 조선 태종 7년에 설치된 부산포왜관이 여러 차례 開閉를 거듭하면서 숙종 4년에 지금의 부산시 중앙동 및 광복동 일대로 신축 이전을 마무리하였다. 이것이 新館, 즉 초량왜관이다.

1876년 부산 개항 직후 초량왜관은 일본조계지로 전환되었다. 일본 조계지로 바뀐 초량왜관은 시가지 확장과 도시화 등으로 단시간에 변하였다. 1907년 조계지의 도시화와 부산 북빈매축 과정에서 그들의 공동묘지 이전이 불가피하였다. 초량왜관 초기부터 형성된 북쪽의 공동묘지 처리방안에 대해 고민하였을 것이다. 공동묘지는 谷町, 지금의 비석마을이 소재한 아미동으로 이장되었으므로 조계지 변화와 묘지 처리는 상호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모포왜관은 선조 40년 설치된²⁰⁾ 이래 숙종 4년 초량으로 이전할 때까지 72년 동안 존속하였다. 인조 18년 일본은 왜관이 너무 협소하여 선박의 출입에 불편한 점이 많으며, 지형상 방어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해 줄 것을 제의해 왔다. 지난번 왜관이 있던 부산성을 비워 달라고 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의 왜관을 확장해 주고 일부 건물을 보수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공사를 벌였으나, 일본은 번번이 이전을 요구하였다.²¹⁾

19) 조선 정부는 조선인 마을과 일본인 마을 사이에 방벽을 쌓게 하여 적대의식을 느끼게 하거나, 부산포 일본인들이 목책을 세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다. 양측의 경계 지움은 삼포왜변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고 본다(김동철(2008) 『15세기 부산포왜관에서 한일 양국민의 교류와 생활』 『지역과 역사』 22, pp.44-45).

20) 『선조실록』 권206, 선조 39년 12월 21일 을묘

현종 12년에는 幕府까지 나서 왜관을 熊川(지금의 창원시 진해)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 정부에서 불허 방침을 확고히 하자 幕府는 옹천 대신에 다대포나 초량으로도 옮겨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종 선택하도록 한 결과 왜관을 초량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하였다.

숙종 2년 3월에 왜관 신관 공사를 위해 대마도로부터 목수·공사감독·취사를 위한 인원 150여명이 도착하였다. 임시 막사가 5월에 준공되면서 조선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동관에서 가까운 용미산에 선창공사를 시작하였다. 숙종 3년 1월 5일 대마도에서 교섭을 마치고 대마도주와 약정한 왜관 터 동서 370칸, 남북 205칸 규모로 공사를 착수하였다. 왜인 목수 등 150명과 조선인 목수, 인부 등이 공동으로 공사를 담당해 숙종 4년 5월에 왜관의 신관, 객사, 역관 거주지 등이 완공되고 7월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²¹⁾

총공사비가 미곡 9,000석, 화폐 17,000량이었고, 년 인원은 총 125만명(대마도인 2,000명)이 동원되었다.²²⁾ 왜관은 용두산을 가운데 두고 동관과 서관으로 구분된다. 동관에는 왜인을 관리하고 외교와 무역사무를 관장하는 館守倭館이 있는데, 동관을 대표하는 건물이다. 규모는 48칸, 중간 3칸, 담장 75칸, 담장이 있는 작은 문, 변소 내외 1칸이다. 또 두 나라 사이의 외교 또는 교역, 그리고 왜관내의 분쟁이 일어날 때 재판을 담당하는 裁判倭家가 있다. 그리고 매일 10일내의 3일과 8일에 조선상인과 왜인들의 市價를 논의하여 정하고 교역하는 開市大廳이 있다. 서관은 東大廳, 中大廳, 西大廳 3대청이 있고, 각 대청에는 東軒, 西軒과 2개의 行廊으로 배치되었다. 왜관 주위에는 높이 6자, 둘레 1,273보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출입대문으로는 3문을 두었는데, 동관의 守門, 서관의 宴亭門과 水門이다. 북문과 동문에는 조선의 장교·통사·門直을 두어 출입을 통제하였다. 담장 밖에는 6개의 伏兵幕을 설치하여 관내 왜인의 동정을 살피면서 몰래 담을 넘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였다.²⁴⁾ 그 밖에 왜관 내에는 다양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書僧倭家, 通詞倭家, 公代館倭家, 公代館會計廳, 判掌館倭家, 醫倭家, 別禁徒倭家, 酒房, 木手倭家 등은 왜인들이 필요에 의해 스스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²⁵⁾ 초량왜관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때까지 199년간이나 존속되었다.

1876년 2월 27일 오전 9시 강화부 연무당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부산은 성실교린

21)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2005) 위의 책 및 김용욱(2014)「개항기 부산조계에 관한 연구」위의 책 참조

22) 『숙종실록』권6, 숙종 3년 2월 12일 기미. 당시 동원된 조선 인부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징발된 僧軍과 경상도내 각 鎭浦에서 동원된 船防軍들이었다.

23) 부산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1989) 앞의 글, pp.755-761

24) 『증정교린지』권3, 관우·관수주

25) 부산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1989) 앞의 글 ;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2005) 앞의 책 ; 김용욱(2014) 앞의 논문 참조

에 근거한 왜관이 있던 항구였으나, 불평등 외교 조약으로 인해 그 위상은 달라졌다. 8월 24일 강화도조약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조일수호조규부록과 조일무역장정규칙이 체결되었다. 일본인의 개항장에서 사방 10리내 통행거리 설정, 개항장에서의 일본화폐 사용, 일본 선박의 港稅 면제, 일본 상품의 매매권, 부산항구 내에 일본인의 묘지와 매장권, 개항장에서의 양곡 수출입허가 등이 약정되었다. 일본인의 內地여행이 허용되고 부산 동래간의 자유 왕래권, 일본 화폐 유통, 조선인의 자유로운 일본 상품구입 등이 가능해지면서 부산항은 일본 경제 침탈 창구가 되었다. 10월 일본정부는 동래부사와 釜山日本專管居留地 설정문제를 협의하였고, 왜관의 정문과 외곽문이었던 守門과 設門²⁶⁾이 철거되었다. 1879년경에 일본정부는 조계 지역 내에 일본인 거류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조계 지역을 모두 일본식으로 구역 개편하고 동명을 바꾸었다. 용두산과 용미산 사이의 동관 지역을 둘로 나누어 本町, 常盤町, 弁天町을 제1구로, 入江町, 幸町을 제2구로 각각 정했다. 1880년에는 신조계지를 흡수하여 北濱町이라 이름 붙였다. 일본인의 증가로 도심지가 확장되자 1888년 6월에 櫻川을 매립하고 長水通을 弁天町, 南町, 幸町 등의²⁷⁾ 행정구역으로 바꾸었다.

특히 1876년 8월 24일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부록과 조일무역장정규칙의 약정 내용 중 부산항구 내에 일본인의 묘지와 매장권 등을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개항 이후 일본인 묘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약 10만평 규모의 초량왜관에 거주한 일본인들은 어디에 묘지를 두었을까. 이와 관련된 것은 초량왜관 남쪽에 위치한 不淨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의 별칭은 水門 또는 無常門이라고도 불리는데, 왜관에서 죽은 사람을 대마도로 보낼 때 이 문을 사용한다. 열쇠는 조선이 늘 보관하지만 필요할 때에는 그것을 빌려서 문을 열고 닫는다. 유해를 대마도로 송환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왜관의 북쪽 소나무 숲에 있는 매장했다²⁸⁾고 한다. 공동묘지는 왜관 북쪽에 위치하였던 것이다. 1912년 자료에는 초량왜관 북쪽 북병산에 일본인 묘소가 있었음을²⁹⁾ 밝히고 있다. 따라서 초량왜관의 공동묘지는 왜관의 경계지점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일대는 1876년 초량왜관이 일본조계지가 되면서 그 부속으로 조선정부로부터 추가로 조차한 지역이었다. 개항 직후 일본정부는 조선 정부에 북병산 북쪽의 약 35,000평 면적을

26) 設門과 守門 사이의 거리는 10리이다(『정조실록』 권23, 정조 11년 2월 10일 무신).

27) 김용욱(2014)「개항기 부산조계에 관한 연구」앞의 책, pp.145-180

28)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2005) 앞의 책, pp.74-75

29) 森田福太郎 編纂(1912)『釜山要覽』(경인문화사 영인, 1990), p.146

조계부속지로 빌려 일본인 묘지로 사용하겠다고 교섭해 왔다. 1891년 6월 일본영사관에서 제안하였으나 당시 청나라와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견제, 그리고 침예한 대립으로 북병산 매수는 진척되지 않았다. 이듬해 러시아는 북병산 일대 매수를 조선 정부로부터 내락을 받고 그 일대를 측량하였다. 이를 파악한 일본은 선점권을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매수를 저지시켰다. 결국 일본의 선점과 병자수호조약에 의거한 묘지 條文으로 북병산 일대의 약 3만평이 일본 조계의 부속지가 되었다.³⁰⁾ 그 규모는 약 15,000평이며, 일본 민간인 묘지 뿐 아니라 육·해군 묘지로서도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비석만 세우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형태로 조성하였다고 한다.³¹⁾ 일본 정부가 매수하게 된 배경은 단순히 묘지 확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개항 직후, 부산의 일본인 조계지 총면적은 11만평이다. 영사관을 비롯하여 관용지, 공공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그 나머지는 민간인에게 영구 임대되었다. 그러나 부산에 일본인 유입이 급증하면서 조계지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은 조계지에 도시 기반시설을 집적시키면서 1888년 11월에서 이듬해 12월까지 북병산 일본인 묘지와 용두산 사이에 있었던 구릉을 파서 신작로로 만들었다. 지금의 대청동과 동광동, 초량 방면의 교통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북병산의 일본인 묘지를 도로로 일부 활용하였다. 1907년까지 북병산 일본인 묘지는 존치하였으나, 부산 북빈매축이 착공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하였다. 매축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 북병산 일부를 허물기 시작하였고, 도시 정비과정에서 묘지는 이전되었다. 이렇게 해서 북병산일대의 묘지가 이전된 곳이 지금의 서구 아미동 산 19번지일대였고, 당시 谷町이라 불렀다.

3. 부산 북빈매축과 谷町

1876년 개항 이전에는 대마도 사람 외의 일본인들은 공식적으로 부산으로 올 수 없었다. 개항 이후 太政官 포고 제128호가 공포되면서 일본 내의 여러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³²⁾ 되었다. 1876년에는 82명에 불과했던 일본인은 1880년 402호에 2,066명, 1890년 728호에 4,344명으로 급증하였다. 1900년에 1,082호 6,067명에서 10년 뒤인 1910년에는 3배

30) 김용욱(1994)「近代開港期の 釜山行政-1876-1910년을 중심으로-」『항도부산』11, p.80

31) 부산광역시 중구청(2013) 위의 책, pp.165-166 ;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13)『역사를 품은 도시 부산 중구이야기』부산광역시 중구청, p.144

32)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1989)『부산시사』1, 부산직할시 및 김용욱(2014)「개항기 부산조계에 관한 연구」 앞의 책 참조

이상 증가하여 4,284호 21,928명으로 급증하였다.

1900년을 기점으로 일본인 인구가 급증한 배경은 1889년 오사카에서 부산까지 소형기선의 정기 운행 이후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일본인이 부산에 크게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산요기선주식회사의 1,680톤 여객선 壱岐丸이 1905년 9월 11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출발하여 226Km 대한해

년도	호수(戶)	인구(名)
1876	-	82
1880	402	2,066
1885	463	1,896
1890	728	4,344
1895	952	4,953
1900	1,082	6,067
1905	2,363	13,364
1910	4,284	21,928

<표> 부산거류지 일본인 호구 및 인구 증가 추이

협을 11시간 30분간의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관부연락선 일기환의 항행을 계기로 일본인이 급격하게 유입되었다.³³⁾ 급증하는 일본인 유입과 물동량으로 인해 부산항 확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 1876년 개항 이후 초량왜관이 일본인 전관거류지로 바뀌면서 기존 규모로는 급증하는 인구나 각종 도시시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전관거류지 내의 본토 일본인 유입과 여행객 급증으로 당시 최고의 변화가인 長水通을 중심으로 상점, 여관 그리고 백화점 등이 개점 및 신축되었다. 여기에 은행과 기업, 관공서 등이 입지하면서 일본인 토지 소유 확대와 도시 팽창에 따른 대체 부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892년 북병산의 일본인 묘지 약 1만5천평을 조선 정부로부터 매수하여 전관거류지 부속지로 삼아 편입시켰던³⁴⁾ 것이다.

일본인들은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하면서 조계지 주변의 조선인 가옥과 토지를 무차별 매입하였다. 1905년 현재 일본이 강점한 조계지 10만평과 그 밖의 토지 549만평이다. 개항한 지 30년 만에 무려 55배의 토지를 점유한 것이다. 1930년에는 약 246만평이 일본인 개인 토지가 되었는데, 이는 부산부의 전체 면적 2/3에 해당된다. 조선인이 소유했던 면적의 4배에 해당된다.³⁵⁾ 이처럼 일본은 조계지 밖에까지 토지를 강점하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중심지였던 幸町·西町 등이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적극 검토한 것이 바로 부산항 매축이다. 부산항 北濱埋築은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일본인들은 자본금 35만원으로 부산매축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898년 1월 북빈매축을 조선 정부에 요청하였다. 발기인들은 서울과 동경을 왕래하면서 주한 일본공사를 경유하여 조선 정부에 청탁하였다. 동시에 부산의 일본거류민단과 교섭, 경부철도

33) 류교열(2016)「제국과 식민지의 경계, 부관연락선」『근대 부산항 別曲』부산근대역사관, pp.90-91

34) 柳敎烈(2002) 앞의 논문 참조

35) 김용욱(2014)「일제시대 부산부의 침략구조」앞의 책, pp.240-241

와 교섭 등을 계속하면서 매축에 대한 승낙을 1900년 12월 8일에 받아내었다. 허가된 내용은 부산항 일본조계지 동쪽 해변을 매축하고, 경계는 부산감리와 해관장 및 일본 영사가 심의 확정한다. 또 허가 후 20개월 이내 기공하고 6년 이내에 준공해야 하며, 기간 내 부득이 기준공을 못하면 파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매축과 관련된 공사비는 100만원이며, 그 규모는 지금의 중앙로 일대 6만4천2백평 규모였다. 그러나 북빈매축 사업이 여러 사정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고 1902년에 이르러 기공식을 가졌다. 매축 사업은 1902-1905, 1907-1908년 두 차례 걸쳐 진행되었다. 공사는 일본청부업자인 大倉組가 담당하였고, 하청부는 일본 시모노세키의 蘇藤組가 인수하였다. 당시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 일체는 조선 정부로부터 무관세 특전을 받았다. 아울러 절영도의 토사, 석재 및 일본거류지 묘지 토석을 무료로 채취할 특권도 얻었다.³⁶⁾

한편 북병산과 용두산 사이는 서로 연결된 낮은 구릉으로 본래 오솔길이었다. 1889년 도로가 개설되었고, 1907년 시가지 확장공사에 따라 평지로 조성되었다.³⁷⁾ 하지만 북빈매축에 필요한 토사 확보와 일본거류민 증가로 대대적인 시가지 정비가 불가피해지자 대청로 주변과 북병산 북쪽 자락에 대한 정비 공사를 단행하였다. 이 때 북병산에 있던 일본군 부산수비대와 공동묘지, 정토종 智恩寺 등 이전이 추진되었다. 1907년 5월 공동묘지는 谷町³⁸⁾으로, 1908년 3월 부산수비대는 대신동에 兵舍를 신축하여 각각 이전하였다. 지은사는 토성동의 임시 포교소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묘지 이전과 관련하여 일본인 거류민 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일본 거류민들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문제, 유족들의 정신적 부담, 새로운 공동묘지 조성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 거류지와 의 거리 문제 등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매립지에 대한 거류민단의 과세권 부여를 약속함으로써 해결되었다.³⁹⁾ 당시 토사채취장인 북병산에 있던 묘지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신묘지 경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공동묘지는 谷町으로 이장되었다.

谷町에 일본인 전용 화장장이 최신 설비로 설치되고 그 주변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었다. 그 규모는 약 2만 5천 평에 이르렀다. 개항 이후 일본인은 火葬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당시 부산에는 화장 설비가 전무하여 많은 불편이 뒤따랐다. 1906년 7월 부산이사청에서는

36) 김용욱(2014)「부산개항과 일본인토지」 및 「일제강점기시대의 부산항 건설(부산축항지)」 앞의 책, pp.578-579, pp.629-634 ; 柳敎烈(2002)「釜山 日本人專管居留地와 北浜埋築에 關하여」『일어일문학』 17, pp.3-12

37)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앞의 책, p.75

38) 곡정이란 지명은 죽음 또는 묘지와도 밀접한 관련 있다. 골짜기로 간다는 뜻으로 속칭 골로 간다는 것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차철욱, 류지석, 손은하(2010) 앞의 논문, 참조).

39) 柳敎烈(2008)「1920年代 植民地 海港都市 釜山の 日本人社會와 ‘죽음’의 폴리틱스」『일어일문학』 39, p.308

새로 조성한 곡정 산록 2만4천평 규모의 일본인 전용 공동묘지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북병산 일본인 묘지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장을 완료하였다. 이 때 무연고분 약 3백기도 함께 이장하여 한 칸에 모았다. 무연고분은 17세기 중엽으로부터 元祿時代에 해당하는 것 56기이며 1903년 이전의 것이 대부분이며, ‘阿比留’, ‘扇’, ‘梯’ 등의 성씨들이 많아 대마도인으로 추정한다. 또 1909년에는 대신리에 있던 남골당을⁴⁰⁾ 이전하고, 1928년 그 명칭을 곡정공동묘지로 변경하였다.⁴¹⁾ 이 일대에 화장장과 남골당, 공동묘지, 그리고 시내에 흩어진 무연고분묘까지 集積되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피하는 시설들로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 때문에 이 일대는 사람이 살기가 부적합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부산으로 모여들던 조선인 빈민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빈민지대가⁴²⁾ 되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였다. 당시 70만명이 넘는 일본인이 거주하였는데, 패전 직후 귀환 수속을 밟고 일본으로 귀환한 수는 남한 416,109명, 북한 297,194명이다. 귀환할 때 은행 및 회사원 대부분은 2개월분의 봉급과 퇴직금 지급받았다. 그리고 예금을 찾거나 각종 가재도구를 팔아 현금화하여 빨리 귀환하려 하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거류민단 성격인 日本人世話會가 결성되어 귀환을 도왔다. 1945년 9월 1일 부산 조직이 결성되어, 초대 회장은 대마도 출신으로 부산 3대 갑부 중 한 사람인 池田佐忠가 맡았다. 2대 회장은 당시까지 부산일보사 사장으로 있던 芥川浩가 맡았다.⁴³⁾ 일본인들은 철수에 앞서 부산일본인세화회에 의하여 18개의 사원에 안치되었던 일본인들 유골을 거두어서, 연고가 있는 유골을 일본 후쿠오카 하카다에 있는 聖福寺에 안치하도록 하고, 무연고 유골은 아미동의 일본인 묘지에 매장하고 부산항을 떠났다. 부산 시내 사원에 보관된 유골 중 유족을 파악하지 못한 유골은 1946년 7월 28일에 곡정공동묘지 한 칸에 모아 ‘無緣者佛之墓’라는 묘석을 세우고 위령제를 행하였다.⁴⁴⁾ 또 大廳町의 金剛寺에는 1,300기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중 유족이 판명된 것 458기를 1946년 10월에 한 조각씩 수습하여 돌아갔다. 일본인들은 서둘러 귀국하면서, 곡정에는 무연고 유골과 묘지석, 부자재만 남게 되었다.

한편 1944년 말 현재 재일조선인수 총 1,936,843명이며, 1947년 9월 현재 총 529,907명이다. 약 140만명의 재일조선인이 일본 패전 직후 귀환하였다. 1945년 8월에서 12월까지 50만명

40) 東本願寺別院은 大新里 298번지에 1904년 화장장을 신설 경영하였고, 1907년 7월에는 남골당을 완공하였다.

41) 柳敎烈(2008) 앞의 논문, p.307 한편 신설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과정에 대해서는 柳敎烈(2011) 위의 논문, pp.368-370 참조바람.

42) 박철규(1998)「1920-1930년대 부산지역 빈민의 추이와 생활」『항도부산』15, 참조

43) 부산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1989) 앞의 글, pp.1056-1057

44) 柳敎烈(2008) 앞의 논문, pp.313-314

이상, 이듬해 12월까지 100만 명 이상 귀환한 것으로⁴⁵⁾ 추정된다. 이 때 귀환한 재일조선인의 상당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전국 의 피란민들이 부산으로 몰려 왔고, 인구는 47만여 명에서 84만여 명으로 급증하였다. 기존 부산 도심지에서 피란민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청학동·감만동·아미동 등에 피란민을 수용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휴전 후 국제시장과 보수천 주변의 피난민들이 화재와 정부의 판자집 철거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로 강제 이주를 당하자, 그 대안으로 아미동으로 옮겨 정착하였다.⁴⁶⁾ 한국전쟁과 부산에 자주 발생한 대형 화재 등 처절한 현실 앞에서 일단 묘지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 빈민들이 모여 살았던 곡정에 한국전쟁과 대형 화재로 갈 곳을 잃은 이주민들까지 모여들면서 비석마을은 확대되었다.

4. 비석마을 묘지석과 주요 내용

지난 2014년 부산창조재단의 지원으로 『사진으로 보는 비석마을 이야기』 자료집 발간에 필자를 비롯하여 오태석, 허지영 등 마을활동가와 동의대 건축학과 신병운 교수가 참가하였다. 당시 묘지석 사진을 바탕으로 내용을 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묘지석 중 상당수가 시멘트로 덮여 있거나, 이끼 및 이물질 등이 쌓인 채 촬영되었다. 이로 인해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묘지석의 판독 불가 글자에 대한 현장에서의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다.



<탁본 현장>

2015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동의대 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 등 총 10명이 참여하여⁴⁷⁾ 사흘에 걸쳐 사전 조사와 탁본을 하였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총 120여점이 넘는 비석을 조사하였다. 묘지석 중에는 주택의 하부 꺾



<탁본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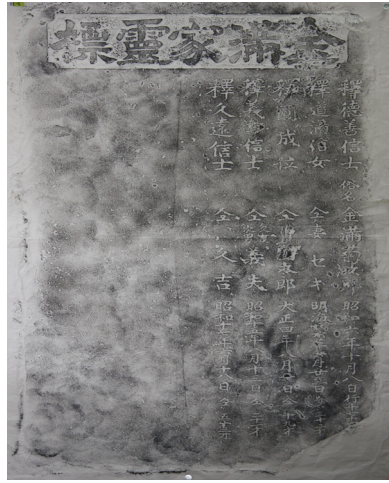
45) 최영호(2008)「해방직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인 귀화」『항도부산』24 참조

46) 차철욱, 공윤경, 차운정(2010)「蛾眉洞 산동네의 形成과 文化變化」『문화역사지리』22-1, pp.4-7 ; 차철욱, 류지석, 손은하(2010)「韓國戰爭 避難民들의 釜山 移住와 生活空間」『민족문화논총』45, pp.269-271

47) 당시 묘지석 조사 및 탁본에 참여한 학생은 김지선, 박주향, 전진이, 최동욱, 최성욱(이상 석사과정) 그리고 김상혁, 김준희, 신우, 엄대석, 조재성(이상 학부)이다.

돌, 계단, 축대, 각종 받침대 등에 사용되어 그 비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탁본 작업 중에 주택내부에 비석이 상당수 존재하여 마을 주민들의 증언과 제보에 잇달았다. 주택 내부와 앞마당 또는 경계석으로 사용되는 묘지석이 추가로 다수 발견되었다. 하지만 일부 묘지석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위치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힘들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묘지석 자체를 터부시하여 탁본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120여개의 묘지석 중 탁본 가능한 것을 간추린 결과 70여개로 정리되었다. 70여점의 탁본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사진으로 보는 비석마을 이야기』 자료집 편찬 당시의 오류는 물론 사진으로 판독할 수 없었던 내용도 확인되어 訂正하였다. 조사 및 탁본 중 특정 기문을 알리는 文樣이 다수 조사되기도 하였다. 70여점 중 비석의 2/3 이상 판독되는 것을 중심으로 묘지석 내용을 정리 소개하고자 한다. 묘지석의 내용 구성과 형태가 일본 묘지석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이를 비교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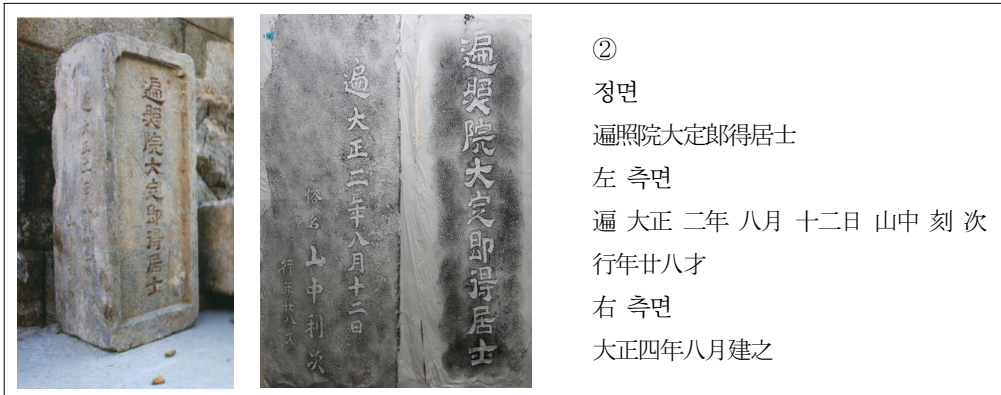


①

金滿家 靈表

釋 德善 信士 俗名 金滿菊次郎
 錫 道滿 信女 全 金妻 七キ
 錫 圓成 位 全 ○太郎
 錫 義章 信士 全 久言 次男 義夫
 釋 久遠 信士 全 久吉

昭化 六年 十月 八日 行年 七十四
 明治 廿六年 一月 廿三日 全 三十二才
 大正 四年 八月 一日 全 十九才
 昭化 十五年 八月 十三日 全 二十一才
 昭化 十七年 六月 十八日 全 五十三才



②
 정면
 遍照院大定郎得居士
 左 측면
 遍 大正 二年 八月 十二日 山中 刻 次
 行年廿八才
 右 측면
 大正四年八月建之



③
 정면
 南無阿彌陀佛
 釋 寶輪 信士
 측면
 明治 十四年 二月 十日 ○
 太 ○
 明治 ○ ○ ○ ○ ○ ○ ○ ○ ○ ○ ○ ○
 安 太郎 ○



④
 昭和十四年八月
 宮島今朝太郎建之

⑤ 明治四十二年十月二十日歸幽贈○ 明治四十二年十月二十日歸幽	⑥ 昭和十年二月 吉川信之建之
⑦ 俗名宮本龜市 行年四十七〇	⑧ 國分治之墓 國分〇〇〇
⑨ 春野家累代之墓	⑩ 西山家之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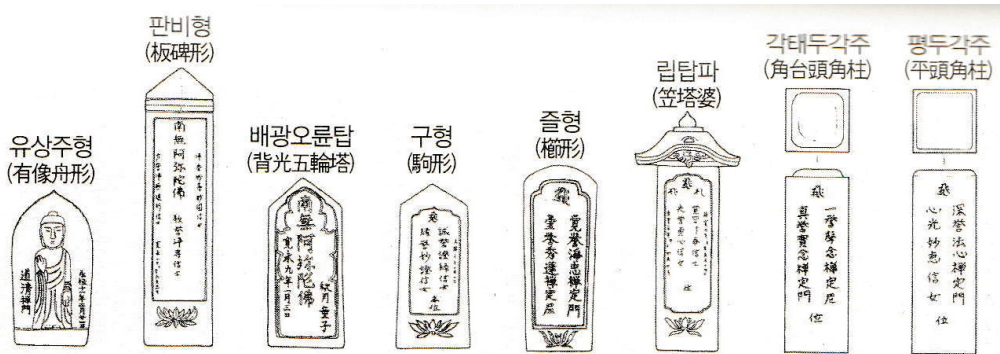
다음은 묘지석 탁본 내용을 검토해⁴⁸⁾ 보기로 하자. ①의 金滿家 靈表에서 ‘錫 圓成 位 全 ○太郎’의 ○는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亡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靈表는 묘비와 유사한 뜻으로 처음 사람이 죽었을 때 세우는 표석을 말하는데, 전체적인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가족 묘비로 추정된다. 김만국 妻가 가장 먼저 사망했는데 명치 26년(1880)이다. 장남은 대정 4년(1915)에, 3남은 소화 17년(1942)에 사망하였다. 묘석은 대개 1주기, 3주기, 7주기 등 年忌

48) 2016년 10월 29일 일본 APU대학에서 개최된 한국일본근대학회 발표 토론에서 일본의 장례 문화 및 묘지석 구성과 형식에 대해 日本 法政大学の 牧野英二, 山形大学の 高吉姬, 韓國 가천대학의 閔根英行 등 여러 교수께서 고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본고에 제시된 묘지석 내용 판독과 그 양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지면을 빌어 밝혀둔다.

공양 때 건립하는 것이⁴⁹⁾ 일반적인 관례란 점을 감안하면 1주기 또는 3주기인 1943 또는 1945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遍照院大定郎得居士에서 편조원은 묘지의 주인공이 머물던 사찰 내지 屋號의 명칭으로 추정된다. 大定郎得이라는 居士가 사망할 때 나이는 28세로 기록되어 있고, 묘지석이 세워진 년도는 대정 4년(1919)이다. ③ 南無阿彌陀佛釋寶輪信士는 불교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골목길의 계단 돌로 사용되어 상당부분이 마멸되고, 일부는 다른 꺾들과 중첩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가장 오래된 묘지석은 ⑤ ‘明治四十二年十月二十日歸幽’로서 명치 42년(1909)이다.

다음은 묘지석 형식을 검토해 보자. ② 묘지석은 생전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居士’로 불교식 戒名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근세에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③은 즐형으로 내용은 불교식이다. 일본은 공원식으로 꾸민 공동묘지 형식인 靈園墓地를 활용한다. 여기에 ‘○○家 조상 대대의 墓’ 또는 ‘○○家の 墓’로 새겨진 묘석을 설치하는데, 이는 근세에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집 단위로 하기 보다는 개인을 단위로 하는 것이고, 생전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居士’ 또는 ‘○○○大姉’ 등의 불교식 戒名을 묘석의 전면에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다.⁵⁰⁾



특히 ⑫ 불상은 위의 <그림>⁵¹⁾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像舟形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② 遍照院大定郎得居士는 笠塔婆, ③ 南無阿彌陀佛釋寶輪信士은 楡形 형식을 따르고 있다. ⑧ 春野家累代之墓, ⑨ 西山家之墓 ⑩ 國分治之墓, 등은 추정하건대 平頭角柱로 보인다. 이와

49) 이와타 시게노리(岩田重則) 지음, 조규현 옮김(2009)『일본 장례문화의 탄생』소하, p.98

50) 이와타 시게노리(岩田重則) 지음, 앞의 책, pp.83-87, p.99

51) 이와타 시게노리(岩田重則) 지음, 앞의 책, p.157 재인용

같은 형식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비석마을 묘지석들은 일본의 근세 이후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비석마을에 산재한 각종 묘지석의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5. 나오면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석마을 형성은 1907년 추진된 부산항 北浜埋築과 관련 깊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이 개항되면서 초량왜관은 일본 조계지로 변모하면서 급속히 확장되었다. 일본인들의 토지소유가 많아지자 북병산 일대를 새로운 거류지에 편입시켰고, 1882년에는 북병산 일본인 묘지 약 1만 5천평을 일본거류지 부속지로 삼았다. 1907년 이 일대를 북빈매축의 매립토로 사용되면서 이장된 곳이 谷町이다.

1945년 해방되면서 일본인들은 서둘러 귀국하였고, 수 백기의 무덤 중 일부를 이송해 갔다. 곧 무연고 유골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기존 도심지에서 피란민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청학동·감만동·아미동 등지에 분산 수용하였다. 상당수 피난민들은 전쟁과 부산에 자주 발생한 대형 화재라는 처절한 현실 앞에서 일단 묘지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조선 빈민들이 모여 살았던 곡정에 한국전쟁과 대형 화재로 갈 곳을 잃은 이주민들에 의해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후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지금의 비석마을로 변모하였다.

비석마을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가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산19번지 일대에 조성된 비석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성된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피난민들이 이 지역의 비석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였다. 현재 부산 서구청은 근대사의 아픔을 가진 비석마을의 무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부산에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 가꾸기’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석마을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비석마을과 부산시, 마을 사람들과 시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그 벽을 허물고 비석마을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마을 역사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 주민들에게 비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였고, 관리 및 보존에 대한 미흡한 조치는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석마을의 세부 안내판

제작이 필요하다. 마을 형성과 묘지석 내용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사료>

『태종실록』, 『세종실록』, 『중종실록』, 『선조실록』, 『숙종실록』, 『증정교린지』, 『청장관전서』

<단행본 및 논문>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1989)『부산시사』1, 부산직할시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2005)『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논형
 이와타 시게노리(岩田重則) 지음, 조규현 옮김(2009)『일본 장례문화의 탄생』소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13)『역사를 품은 도시 부산 중구이야기』부산광역시 중구청
 부산광역시 중구청(2013)『1928 그 때 무슨 일이...』부산광역시 중구청
 김용옥(1994)『近代開港期の 釜山行政-1876-1910년을 중심으로-』『항도부산』11
 박철규(1998)『1920-1930년대 부산지역 빈민의 추이와 생활』『항도부산』15
 김용옥(2014)『증보판 부산의 역사와 정신-근대와 현재를 묻다』도서출판 전망
 비석마을 도록 작업 추진 협의회(2014)『사진으로 보는 비석마을 이야기』부산창조재단
 최연주 외(2015)『증산마을 이야기』부산발전연구원
 부산근대역사관(2016)『제국과 식민지의 경계, 부관연락선』『근대 부산항 別冊』부산근대역사관
 하우봉(1994)『조선시대의 한일관계』『강좌 한일관계사』현음사
 최영희(1994)『임진왜란』『강좌 한일관계사』현음사, pp.301-305
 柳敦烈(2002)『釜山 日本人專管居留地와 北浜埋築에 關하여』『일어일문학』17
 차철욱(2006)『釜山 北港 埋築과 市街地 形成』『한국민족문화』28
 _____(2006)『대한제국기 부산 북항 매축관련 자료의 내용과 성격』『항도부산』22
 柳敦烈(2008)『1920年代 植民地 海港都市 釜山の 日本人社會와 ‘죽음’의 政治』『일어일문학』39
 최영호(2008)『해방직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인 귀화』『항도부산』24
 차철욱·공윤경·차운정(2010)『蛾眉洞 산동네의 形成과 文化變化』『문화역사지리』22-1
 차철욱·류지석·손은하(2010)『韓國戰爭 避難民들의 釜山 移住와 生活空間』『민족문화논총』45
 柳敦烈(2011)『1930年代 植民地 海港都市 釜山の 日本人社會와 ‘죽음’의 政治』『일어일문학』49
 황영식(2012)『도심 속 오지마을 경관특성 비교연구 : 부산 태극마을, 비석마을, 안창마을을 대상으로』경성대
 공학석사 논문
 동범준(2015)『釜山 蛾眉洞 碑石마을의 現況과 持續可能한 發展方向 提案』『박물관학보』28
 정희영 외(2015)『蛾眉洞의 形成過程과 住居變化에 關한 研究』『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35

논문투고일 : 2017년 12월 19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0일
 2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9일

<요약>

일본의 부산 북빈매축과 비석마을

최연주

비석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산 19번지 일대이다. 비석마을로 불리는 것은 지금도 일본인 묘지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는 20세기 초 일본인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었다. 마을 곳곳에 明治, 大正, 昭和 등의 일본 연호가 새겨진 묘지석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수량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일부 훼손된 채 켄돌이나 축대, 계단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석마을은 부산이 근대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장소이다. 부산 도시역사와 연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왜관의 왜인들이 행한 葬禮와 省墓 등 관련 의식에 대해 검토한 후 초량왜관의 확장과 개편, 그리고 일본 조계지의 도시화에 따른 비석마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비석마을에서 지난 2015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총 120여점의 비석을 조사하여 70여개를 탁본하였다. 당시 탁본한 묘지석 내용 중 일부를 판독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초량왜관에 위치한 북병산 일본인 묘지는 1907년 부산항 북빈매축공사에 따라 아미동일대로 이전되었고, 1920년대 부산 최초의 근대식 화장장이 들어서면서 谷町이라 불렀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빈민들이 살았던 공간이었다. 1945년 해방되면서 일본인들은 서둘러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수 백기의 무덤 중 일부는 일본으로 이송되었지만, 무연고 유골은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한편 1950년 한국전쟁 직후 기존 도심지에서 피란민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부산 시내 여러 곳에 부산 수용하였다.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부산에 자주 발생한 대형 화재 등 처절한 현실 앞에서 아미동으로 이주한 피란민들은 일단 묘지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앞으로 비석에 대한 안내 정보의 부재,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미흡, 비석 위치 불명확으로 관리의 문제, 비석 및 주변의 관리·보존 미흡 등의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비석마을의 형성과 변화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묘지석의 다양한 정보와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The reclamation in busan north harbor of Japan and Bi-Suk village

Choi, Yeon-Ju

Bi-Suk Village is located in Ami-dong, Seo-gu, Busan, Republic of Korea. The reason why being called Bi-Suk Village is a number of Japanese Tombstones have existed now. There are Japanese cemetery and crematorium in early-20th Century. Tombstone carved in Japanese Era such as Meiji, Taishō, Shōwa have spreaded in all over the village, and the number of 'Stones' are uncountable. Bi-Suk Village is a place formed in process that Busan has been changed to Modern City. Therefore, this study discuss with two aspects associated with City History of Busan.

Firstly, it starts with checking the Japanese ceremony lived in Japanese office such as funeral and visit to ancestral graves, and considers Bi-suk Village's development in relation to urbanization of Japanese Settlement. Secondly, it is composed with organization by interpreting the gravestone rubbing. This research based 70 pieces of the gravestone rubbing process on 120 pieces of the tombstone since June 20 to 22, 2015.

Japanese Cemetery placed in Choryang Japanese Office had been moved to Ami-dong due to the reclamation in Busan North Harbor in 1907, and it named Gok-jeong after building Busan's first Modernized crematorium in 1920. Numerous poor people lived here in Joseon's early-20th-Century. After Liberation day of Korea in 1945, Japanese return to their own country in a hurry with several remains, but nameless remains were wasted there. Soon after the Korean war in 1950, local downtown cannot accommodated numbers of war refugees, and then they had been partly accommodated all over Busan. Refugees moved to Ami-dong built the house on the tombstone and reside there naturally.

Hereafter, problem such as lack of information regarding tombstone and surroundings must be solved. Systematic study and distinct information need in order to comprehend historical event as to Bi-suk village's development and growth.